

연변팀, ‘꿀찌’ 강서려산 잡고 분위기 쇄신에 박차

— 이보 로난 득점포 … 힘들게 지켜낸 2 대 1, 다음 경기 다시 홈



이겼다. 홈장무패 행진을 이어가긴 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5월 25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팀 (이하 ‘연변팀’)은 강서려산팀 (이하 ‘강서팀’)을 2 대 1로 격파하며 갈길 바쁜 강서팀을 제물 삼아 홈장승을 간신히 장식했다.

안방으로 돌아온 연변팀은 지난 제 10라운드 운남 원정에서 당했던 굴욕적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특히 홈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원한 승리가 필요했다.

4-1-4-1 전형을 꺼내들며 연변팀은 최전방의 로난을 원톱으로 리세빈, 리강, 이보, 리룡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천창걸이 중원을 구성했고 한광휘, 서계조, 왕봉, 김태연이 수비 라인을 지켰다. 키퍼 장갑은 동가림이 착용했다.

한편, 며칠전 한광휘가 팀 주장직을 내려놓으며 인원 교체가 있었던 연변팀은 이날 천창걸이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다.

경기 시작과 함께 랑팀은 탐색전 없

이 밀어붙였다. 개시 휘슬과 거의 동시에 강서팀이 매서운 공격을 가하며 연변팀 문전을 위협하나 싶었는데 동가림이 잘 지켜냈다.

이어 역습을 가동한 연변팀이 무서운 속도로 강서팀 문전까지 돌진했고 김태연이 오른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밀어넣어준 공을 금지구역에 침투해 있던 리세빈이 뒤공간으로 교묘하게 넘기는 패스로 핸드볼 반칙을 이끌어냈다.

주심의 단호한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 3분 만에 연변팀은 이보의 침착한 페널티킥에 힘입어 일찌감치 1 대 0으로 앞서갔다.

사기가 오른 연변팀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랑 측면을 살려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연변팀은 파상공세로 강서팀 문전을 휘저어놓았다. 리세빈의 문전 쇄도, 로난의 슈팅이 아슬아슬 골문을 위협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추가골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달리 17분경, 되려 강서팀에 헤더 동점골을 허용할 줄이야… 강서팀이 얻은 첫 코너킥이 폴로 연결되며 두 팀

은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연변팀은 강서팀의 수비를 뚫으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시도해보았지만 좀처럼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고 강서팀의 골문을 열지 못한 채 전반전을 1 대 1로 마무리했다.

후반 들어 연변팀은 집중력과 조직력을 다듬으며 공격의 활로를 찾으려 했다. 승리가 간절한 강서팀이 끈질기게 달라붙으며 공격을 주거나 받거나 불꽃이 튀었다. 두 팀의 균형이 깨진 건 후반 53분, 로난의 추가골이 강서팀 골망을 시원하게 갈랐다.

강서팀 문전으로 크게 올라온 크로스를 로난이 몸으로 받아 역시 문전에 침투해있던 리강에게 넘겨주었고 금지구역 안에서 왼쪽으로 공간을 넓히며 쇄도하던 리강이 공을 다시 로난에게 띄워주었다. 살짝 뛰어들어 로난의 헤딩볼이 정확하게 골대를 명중하며 강서팀의 골망이 출렁이었고 연변팀은 2 대 1로 다시 한번 앞섰다.

리드를 잡은 연변팀은 61분경에 리세빈과 리룡 대신 현지건과 왕성패를 투입하며 공격력 강화에 나섰다. 10

분 뒤에는 이보를 손군으로 교체하며 재차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올 시즌 현재까지 아직 승리가 없는 강서팀은 악착같이 버텼고 연변팀의 뒤공간을 간간히 노리며 역습을 시도했다. 간절함이 만든 슈팅이 연변팀의 문전을 위협했다. 골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후반 들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되었다.

끝까지 무섭게 몰아붙이는 강서팀에 맞서 연변팀은 83분경에 리강을 빼고 허문광을 투입하며 승점 지키기에 나섰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오가며 경기가 초조하게 진행된 가운데 후반전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고 두 팀 모두 더 이상의 추가골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연변팀은 경기 내내 21회에 달하는 슈팅 기록을 쓰면서 강서팀을 크게 앞섰지만 골맛을 못 봤고 한풀 차 우세로 힘겨운 2 대 1 홈장승을 지켜냈다.

한편 다시 돌아온 홈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며 ‘마귀홈장’ 명예를 지켜낸 연변팀은 6월 1일에 광서평과하료와 연속 홈경기를 이어간다.

/글 김가혜기자 /사진 김파기자

특독 권진평

‘꿀찌팀’에 진땀승? 축구에 ‘절대’는 없었다

연변팀이 홈에서 또 한번 지지 않는 경기를 했다.

5월 25일에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팀 (이하 ‘연변팀’)은 강서려산팀 (이하 ‘강서팀’)을 2 대 1로 제압하며 홈장승을 지켜냈다. 나아가 홈에서 20경기 무패행진 기록을 쓰고 있는 중이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 쉬울 거라 생각했던 건 상대가 올 시즌 아직 승리가 없다는 것, 순위도 최하위로 성적 부진에 허덕이는 팀이라는 것… 고로 경기 전 승부의 추는 연변팀에 기울었다. 막상 두경을 열어보니 점철된 패승과 달리 경기 종료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시작도 좋았던 연변팀은 전반 2분에 이보의 페널티킥으로 일찌감치 앞서가면서 홈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20분도 안되어 강서팀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빠듯해진 했지만 후반전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다.

그러나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강서팀이 후반 들어 무섭게 몰아붙였다. 간절함과 간절함이 부딪혔다. 운남 원정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고 더우기는 홈장승을 지켜내려고 철벽을 치는 자와 시즌 첫 승을 이루어 난관을 뚫으려는 자가 각자 절실함을 보였던 것이다.

6분이 이렇게도 지나간 시간이었

나… 손에 땀을 쥐게 한 추가시간 6분을 조마조마하게 보내고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서야 선수들도, 팬들도 드디어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환호했다.

한풀 차 우세를 지켜낸 결과에 반해 경기 과정을 기록한 기술통계표를 살펴보면 또 슈팅 21회 (유효 슈팅 6회)라는 데이터를 뽑은 연변팀이 강서팀의 슈팅 10회 (유효 슈팅 4회)를 크게 앞서긴 했다. 이렇듯 압도적인 슈팅을 쏟아낸 데 비해 연변팀은 어려운 경기를 했다. 홈에서 꿀찌팀을 상대로 힘겨운 진땀승을 올렸다.

하지만 공은 등글고 축구에는 ‘절대’란 없다. 절대적인 약팀도 없고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경기도 없다. 그러나저러나 간절했던 경기에서 지지 않는 축구를 했다는 것, 홈장의 명예를 지켜냈다는 게 의미가 깊다면 깊다. 나아가 9위에서 이번 경기가 끝난 뒤 순위가 7위로 상승하며 사기진작과 분위기 쇄신을 통해 다음 홈경기 (6월 1일)를 착착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상대는 우리보다 두개 순위 높은, 현재 리그 5위에 머물러있는 광서평과하료팀이다. 절대적인 강팀 역시 없는 만큼, 또다시 홈인 만큼 팬들은 더운 날씨에 속이 땀 흘리는 ‘사이다’같은 경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 김가혜기자



김득초대석

김봉길 감독 “끝까지 투혼 발휘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5월 25일 오후 3시,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팀은 이보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로난의 추가골에 힘입어 강서려산팀을 2 대 1로 꺾고 홈장승을 이룩했다.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연변 룡정팀 김봉길 감독은 “11차례 경기후 부상 선수가 많았고 오늘도 부상 선수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열렬히 응원해준 팬들의 덕분인 것 같다.”고 승리의 공을 돌렸다.

U-19 국가남자축구팀에 발탁된 왕박호선수에게 김봉길 감독은 “왕박호선수는 신체적으로나 체력



적으로 좋고 발전중에 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팀에서 대표팀 선수가 나온 것은 영광이다. 앞으로 프로에서 경험을 좀더 쌓으면 발전할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 김파기자

연변 ‘축구의 고향’ 명함장 갈수록 빛난다

올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국 축구 발전 중점 도시 및 국가 서부지역 체육과 교육 융합 청소년축구 훈련체계 건설 시범도시 조성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연변 축구문화 IP, 축구도시 새 명함 등을 기획, 구축하는 것을 통해 여러차례의 축구경기를 개최하면서 연변 ‘축구의 고향’ 명함장이 갈수록 더욱 빛나고 있다.

첫진의 개혁시험구

교육부에 따르면 룡녕 대련, 하남 정주, 산둥 제남, 사천 성도, 귀주 필절, 감숙 무위, 강서 감주, 길림 연변 등 8개 지역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첫진의 청소년 교정축구 교수준 종합개혁시험구로 확정됐다.

전국 결승전에 진출

최근 2024년 제 3회 중국청소년축구 리그경기 (남자 고종년령대 U-17팀) 복구 예선 연변지역 경기가 룡정 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막을 내렸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구락부 U-17팀이 성공적으로 전국 결승전에 진출했다.

조별 리그에서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구락부 U-17팀은 선수로 연변제 1 중학, 심양시회민중중학대구센터, 장춘시제 2 중학, 흑룡강병성축구구락부 등 4개 팀과 겨뤄 4전 3승 1패, 조 2위의 성적으로 순위 결정전에 올랐다.

가장 관전적인 순위 교차 경기에서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구락부 U-17



팀은 치열한 점전을 거쳐 대련시제 48 중학 축구팀을 2 대 0으로 이기고 성공적으로 전국 결승전에 진출했다.

다음 단계에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구락부 U-17팀은 기세를 몰아 7월에 열리는 전국 결승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종 주말 축구경기

5월 18일,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 1회 고종 주말 축구 리그전이 연길시제 2고급중학교 축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기는 주체육구, 주교육구에서 주최하고 연변체육운동관리중심, 연변축구협회, 연변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했다. 경기는 축구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을 벗어

나 운동장으로 나가 교정축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동시에 이번 대회의 개최는 교정축구의 고품질 발전을 진일보로 관찰, 실시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연변 청소년축구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회 참가팀은 보통고종, 체육운동 학교, 직업학교, 청소년축구구락부, 사회청소년축구기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령대의 선수 (200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들로 팀을 구성하면 모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회에는 연변체육운동학교, 연변제 1 중학, 연변제 2 중학, 연길시제 2고급중학, 훈춘시제 1고급중학, 룡정시룡정고급중학, 돈화성몽축구구락부, 연변 룡정축구구락부 청소년축구팀 (延边龙鼎青训梯队) 등 9개 팀의 총 2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단순화된 경기 형식을 채택해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1라운드씩 진행된다. 9개 팀이 총 9라운드, 36 경기를 치러 승점에 따라 최종 순위를 매긴다.

개막전은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팀과 연변룡정정소년축구팀이 펼쳤는데 90분간 맞대결 끝에 연변룡정정소년축구팀이 1 대 0으로 첫 승을 가져갔다.

축구협회 우승컵 경기

5월 12일, 2024년 연길시 제 1회 축구협회 우승컵 (사회조) 이 연길시

정소년아마추어체육운동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활동은 주축구협회,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체육국)의 지도하에 연길시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군대체육문화발전유한회사에서 주관했으며 연길시청소년아마추어체육운동학교에서 협조했다. 경기는 9인조 승자전 방식을 취했으며 연길시 각 아마추어축구구락부, 협회, 기업과 사업단위의 축구애호가들이 앞다투어 신청하면서 최종 총 15개 팀, 400여명이 이번 ‘축구대잔치’에 참가했다.

이번 축구협회 우승컵 경기는 주말마다 순환경기를 진행하며 6월 2일에 최종전을 치른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연길시의 축구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축구운동의 활력을 방출하며 연길시 축구문화와 IP 및 축구도시의 새로운 명함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광범한 축구애호가들이 즐거운 축구, 활력 넘치는 연길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의 고향에서는 매주마다 경기가 열린다. 뿐더러 모든 경기마다 정채롭지 않을 수 없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반 년도를 관통하는 우수한 축구경기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랑호한 연변축구 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변축구 정신을 고양하며 연변축구 문화를 전파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즐거운 축구와 활력 넘치는 연변을 느끼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